

FinalTermExam Solution

Nam-Un, Cho

2010-06-28

1

1.1

1

1. (33 points) (a) (11 points) 정부의 확장(긴축)적 재정정책 수단은 크게 세 종류의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 그 거시적 파급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하라.

먼저 재정정책을 가질 때 필요한 요소를 보고
 $G - T = T - G - TR$ 이라고 기울라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G - T$ 부분의 저축·서비스 차를 봤을 때이다. 또 $G + D = C + I + G$ ($T - TR$)이라고 하면 $I + C$ 부분에서 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거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차별화 시키려는 것을 재정정책이 하며 TR 차는 차별화를 통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혁신적, 전략적으로 재정정책이 되는 것인 것이다. 조세, 기부금 등을 사용한 정부의 차별화를 통해 TR 대체로 재정정책을 펼친다. G 부분에서 정부가 차를 살피거나 놓거나 하는 $\frac{1}{1-T}$ 차별화로 그 결과라는 차이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 TR 로 차를 놓고자 한다는 예상과 같은 차이를 두고 있다.

(b) (11 points) 아래의 그래프는 1970-2004년 사이 미국의 재정적자와 순환조정된 재정적자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자동안정화장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해석하라.

Figure 1: 이성우 작성

1.2

2

1.3

3

2

2.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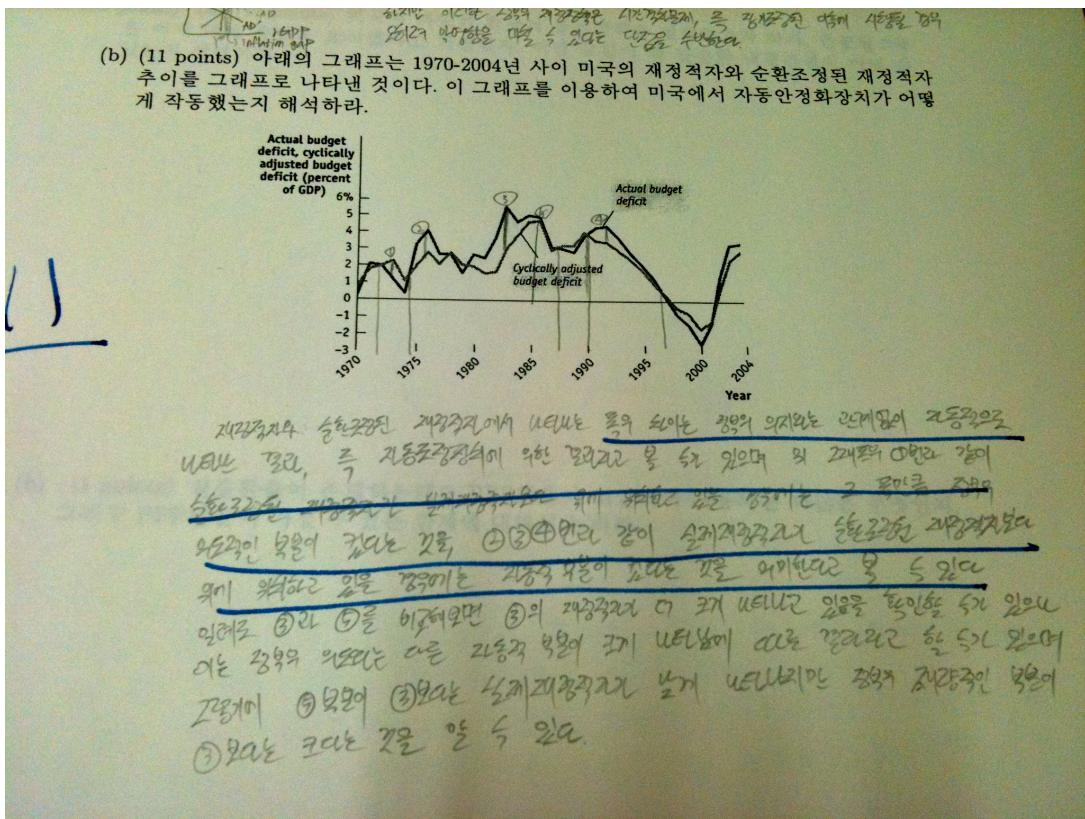


Figure 2: 김정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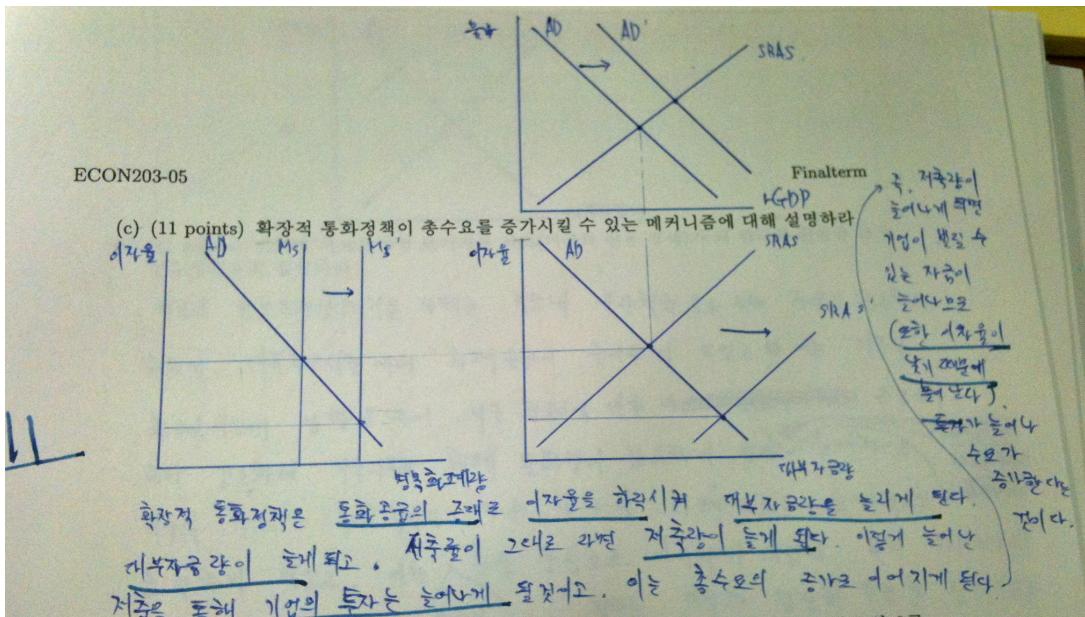


Figure 3: 조일형 작성

2.2

2. (33 points) (a) (11 points) 미국이 과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자, 한중일 3국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유감이 왜 단순한 내정간섭이 아닐 수 있는지 설명하라.

달러화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과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달러화의 투화량이 급증하게 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인플레이션세를 거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달러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세를 거둘 것에 우려되어 유감을 표기하게 된다.

Figure 4: 신지혜 작성

- b) (11 points) 실질환율이 존재하는데도 PPP환율이 고안되어 사용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PPP환율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하라.

실질환율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환율, 제거한 지표이지만, 각국의 물가에는 서로 다른 재화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물화의 차이가 큰 나라 사이의 환율을 수립, 정밀화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동일하게 한 PPP환율이 고안되었다. 이는 같은 상품은 대체로 가격을 맞는다는 이동임기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다른 나라 사이에는 이런 이동임기의 법칙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물가수준이 다른 나라 사이에서는 PPP환율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Page 3

Figure 5: 김세미 작성

2.3

6

3

3.1

7

3.2

8

3.3

9

(c) (11 point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미국의 신용 경색)가 왜 한국의 환율을 급상승시켰는지 설명하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금융기관들 사이에 신용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그 당시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들은 신용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어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금융기관들은~~ 해외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갚을 때나 이자를 지급할 때 달러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어 따라 급속히 상미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급상승했고 이것이 곧 원화 가치의 단기 마비 상대적 하락을 의미하면서 환율이 급상승했다.

한국의 달러

Figure 6: 박대용 작성

3. (33 points) (a) (11 points) 아래 산포도는 20세기 후반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이다. 60년대에는 안정적인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던 이 관계가 60년대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간단한 모델을 통해 설명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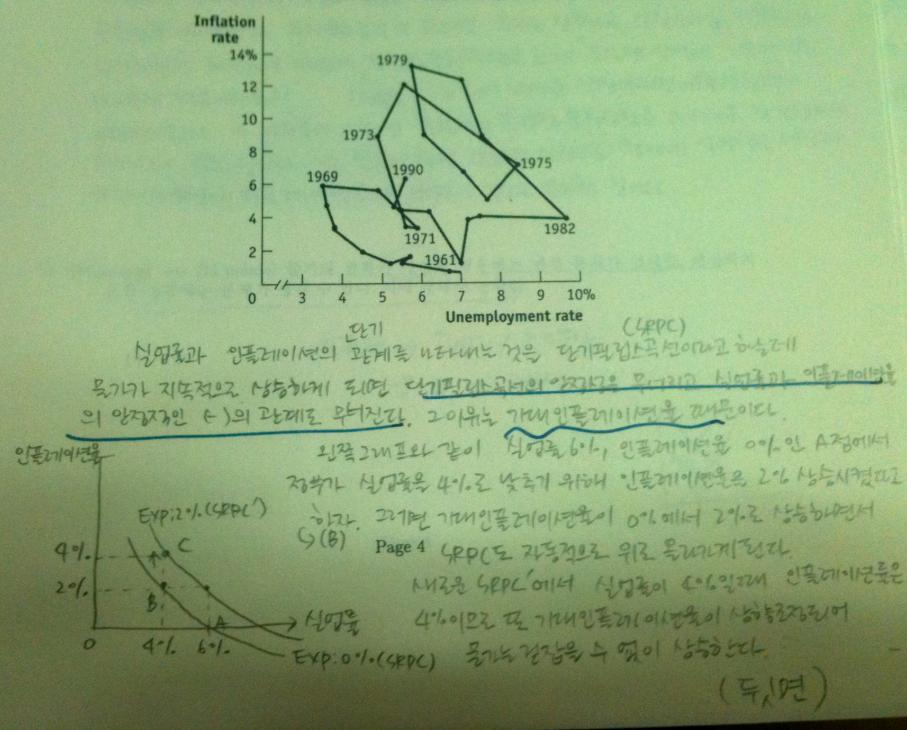


Figure 7: 김재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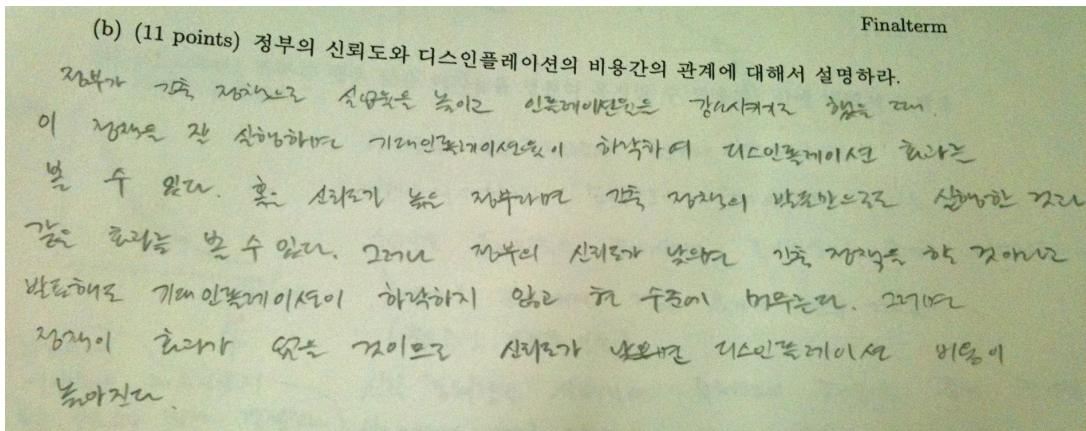


Figure 8: 김민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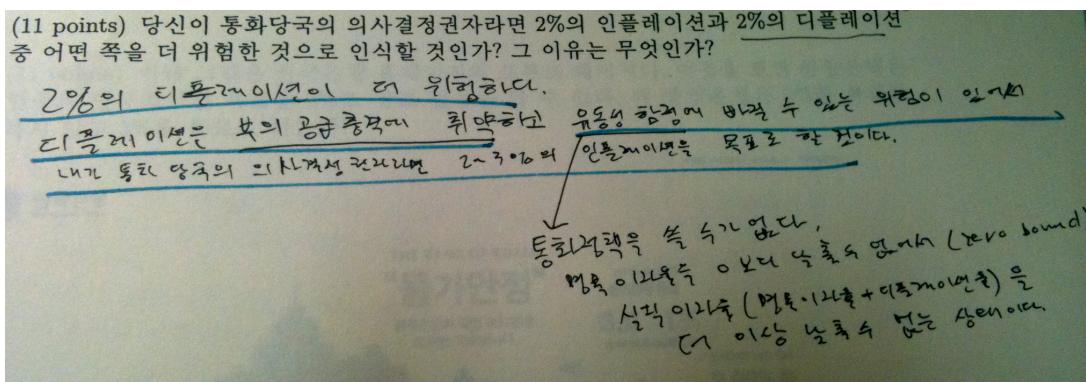


Figure 9: 임종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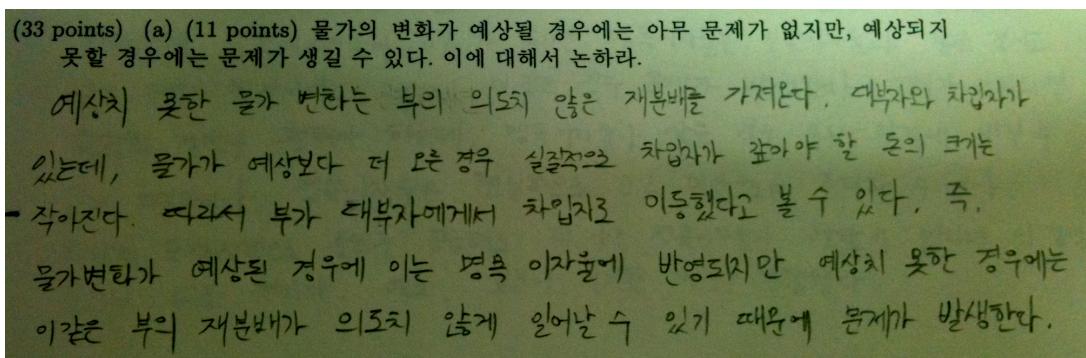


Figure 10: 안성진 작성

4.2

1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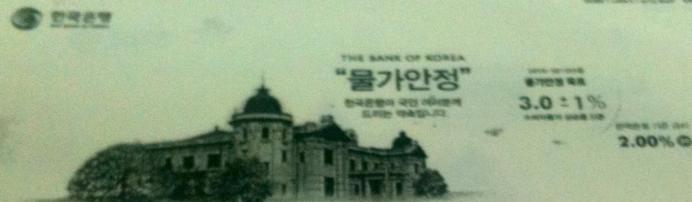
12

(b) (11 points) 정부가 매우 낮은 이자율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모델을 가지고 논해보라.

정부는 NAIRV 보다 낮은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NAIRV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는(엄밀히 증가시키지 않는) 실업률을 양벌로는
단어로써 ~~인플레이션~~ NAIRV보다 낮은 실업률은 정부가 유지하려 한다면 예상(기대)인 물
레이션과 추가적 인플레이션의 계속되는 추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겪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NAIRV보다 낮은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

Figure 11: 임한솔 작성

(c) (11 points) 아래 그림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표본트레이저다. 이것을 보면 중앙은행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중앙은행은 0%를 목표로
하지 않고 3%를 목표로 하는가?



인플레이션률이 0%일 경우, 경기가 부양이 되어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때 유동성 충당에 빠지게 되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because 명목 이자율은 0% 이하로 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언제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약간의 인플레이션률 (3%)을
증정은행은
선호한다.

Figure 12: 최병길 작성